

# 힘 빠진 IPO시장... 카뱅 등 대어급, 하반기 분위기 띄울까

시장 과열평가에 인플레이션 우려 SKIET·제주맥주 등 최근상장 8곳 시초가 대비 등락률 -7.86% 기록

1조 이상 대어급 IPO 줄줄이 대기 기관투자자 경쟁강도 여전히 높아 하반기 IPO 시장 열풍 살아날 듯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주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IPO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분석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소강상태 국면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IPO 시장은 다시 열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지난달 이후 주식시장에 상장한 8곳(스팩 제외)의 시초가 대비 등락률은 -7.86%로 집계됐다. 시초가 대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이전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샘씨엔에스와 씨앤씨인터내셔널, 상장한지 2거래일 밖에 되지 않은 에이디엠코리아를 제외한 5곳의 현 주가가 시초가보다 하락했다. 제주맥주와 에이치피오는 공모가보다도 각각 18.50%, 16.89%씩 내려앉으

〈지난달 이후 상장한 8개사 등락률〉

종목명	상장일	공모가 밴드	확정 공모가	시초가	등락률(%)	
					공모가비	시초가비
SKIET	5.11	7만8000~10만5000	10만5000	21만	42.38	-29.74
에이치피오	5.14	2만200~2만5400	2만200	2만	-16.89	-9.75
씨앤씨인터내셔널	5.17	3만5000~4만7500	4만7500	4만7250	10.95	0
샘씨엔에스	5.20	5000~5700	6500	6400	6.46	7.96
삼영에스앤씨	5.21	7800~1만	1만1000	2만2000	48.18	-28.86
제주맥주	5.26	2600~2900	3200	4780	-18.50	-12.44
진시스템	5.26	1만6000~2만	2만	1만6750	40.94	-5.97
에이디엠코리아	6.03	2900~3300	3800	7600	134.74	17.36

(단위: 원)

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에이디엠코리아도 상장 다음날인 전 거래일(4일) 9%대 하락했다.

SKIET의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IPO의 열기가 식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최근 불거진 스팩주들의 이상 급등 현상도 공모주, 가상화폐 등의 관심이 식으며 '갈 곳 잃은 자금'이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 경쟁 강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반 기업은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한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기관 분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청약경쟁률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인식된다.

올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 37개 기업 가운데 5곳을 제외한 32곳이 기관경쟁률 1000대 1 이상을 기록했다. 대어급으로 분류되는 SKIET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더라도 납입한 청약증거금 평균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공모주에 대한 기관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 SKIET 이후 수요예측을 거친 8사로 범위를 좁혀봐도 에이치피오를 제외한 7곳 모두 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를 확정했다. 밴드를 초과한 곳도 에이디엠코리아, 제주맥주, 삼영엔

스앤씨, 샘씨엔에스 등 절반에 달한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가 범위(밴드)를 웃도는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공급보다 높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여전히 IPO 시장 분위기가 과열 상태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SKIET 등 최근 상장 기업들의 주가 부진과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 등으로 IPO 시장 주목도가 떨어졌다"면서도 "그래도 기대주였던 SKIET는 현주가가 공모가 대비 42% 높은 수준이고 최근 기관 경쟁강도와 활약을 살펴봤을 때 활황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

도 준비됐다. 다양한 중·소형주를 비롯해 공모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어급들의 IPO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40개다.

7개 기업은 심사 승인을 마쳐 본격적인 IPO 일정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난 4~5월 두 달간에만 37개 기업이 청구했다. 지난달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16개 기업이 심사 승인 신청을 끝냈다. 이 외에 크래프톤(게임), 카카오뱅크(금융), HK이노엔(제약바이오), LG에너지솔루션(2차전지)도 기대주로 꼽힌다.

다만 SKIET의 선례로 활인율을 높게 책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나온다.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결정되는 과열 현상도 조금은 진정될 수 있다는 평가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확정 공모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는지 여부가 상장 직후 주가흐름을 100% 좌지우지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자자들이 느끼는 적정 기업가치 수준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분명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무선충전 차폐 시트 개발... 전장·IoT 솔루션 시장 선도

### IPO 간담회

아모센스

자율주행 핵심 통신모듈부터 정밀센서 등 기술 고도화 집중 첨단 소재기반 신사업 투자

차세대 전장 및 사물인터넷(IoT)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 아모센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7일 아모센스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사업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김인웅 아모센스 대표는 "무선충전 차폐 시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 전장 분야와 각종 IoT 솔루션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첨단 소재 기반의 신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 4차산업 시대에 필요한 모듈과 기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모센스는 세계 최초로 무선충전 차폐 시트를 개발했다. 원천 기술 및 무선



7일 김인웅 아모센스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에 따른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주파수(RF) 설계 기술을 포함한 소재 분야부터 차세대 전장 및 IoT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모센스는 자율주행 및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 통신 모듈과 정밀센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키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원격제어하는 기술로 높은 보안 수준과 정밀측위가 가능하다. 특히 아모

센스의 UWB 무선기술은 차세대 디지털 키로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는 품목이다.

센서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에 필요한 다양한 수소센서 모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음성 인식 모듈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앞세워 화자의 위치기반 솔루션 개발은 물론 동시 발화 및 다중 화자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IoT 토탈 솔루션도 아모센스가 강조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대표적으로 UWB 모바일 트래킹은 정밀측위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 연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다. 고주파 RF 설계 기술과 통신 보안 암호 및 정밀측위 알고리즘, 앵커(Anchor) 설계기술 등을 활용한 UWB 애플리케이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르면 올해부터 전장 및 IoT, 기존 RF 및 소재 모든 사업영역에서 신규 사업 아이템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아모센스는 최근 3개년 매출액의 20% 이상을 첨단 소재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또 특허 경영을 통한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고 탄탄한 진입장벽을 구축해 독보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췄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총 1116건이며, 사내 연구인력은 111명으로 전체의 38%에 이른다.

김 대표는 "지속 성장을 위해 아모센스만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하게 응용함으로써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유수의 신규 파트너십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센스의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다. 총 공모주식수는 277만9858주, 공모가 밴드는 1만2400원~1만5200원이다. 오는 10~11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된 후 15~16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금융투자협

## 펀드피킹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펀드 피킹'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펀드 피킹'은 오는 2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7월 20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의 펀드판매 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객성향에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설계 및 고객 상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과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2일간(화·목) 6시간이다. /박미경 기자

### 신한금융투자

## 친환경 응원 캠페인

신한금융투자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목표달성 앱 '챌린저스'와 함께 친환경 실천하기 캠페인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텀블러 사용하기, 마스크 끈 말아서 버리기, 에코백 사용하기, 페트병 분리배출 하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3일까지 2000명 규모로 진행되고,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친환경 미션을 달성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페트병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드는 에코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PLEATSMAMA)와 콜라보로 제작한 가방 및 파우치를 제공한다. /박미경 기자

## 해외선물 MTS서버주문 오픈 이벤트

DB금융투자, 7월 2일까지 사은품

DB금융투자가 오는 7월 2일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해외선물 서버조건주문 체결 시 커피 기프트콘, 백화점 상품권 등의 사은품

을 증정하는 'MTS서버주문'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DB금융투자 해외선물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간 내 해외선물 거래 시 경품 수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MTS를 통한 서버조건주문 유형의 주문 시 1계약만 체결해도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신규·휴면 고객은 1계약 이상 체결 시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해외선물옵션데스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